



일상의 주요한 공간으로서 '방'은 위치, 용도, 가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생활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감싸는 비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침실', '서재', '응접실', '부엌' 등 우리에게 친숙한 삶의 공간은 실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근대의 산물입니다. 한국18세기학회에서는 '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18세기 동서양에 나타난 건축양식, 주택구조, 인테리어 등의 변화를 추적하고 특히 사생활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로서 '방'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18세기의 방은 어떻게 꾸며졌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함께 18세기의 방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봅시다.

한국18세기학회 회장 민은경

2018년 한국18세기학회 추계학술대회

18세기의 방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14시~18시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관(MoA), www.snumoa.org

후원

네이버, 문학동네, 서울디자인재단

개회사

14:00~14:10 민은경(한국18세기학회 회장,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발표

1부 서양의 방

사회 이해수(건국대 영어영문학과)

- 14:10~14:30 이시연(GIST 기초교육학부): 「귀부인의 화장방: 자기만의 방 또는 침입자들」
- 14:30~14:50 이윤수(공주대 불어불문학과): 「리베르티나주 소설에서의 소파와 의자 이야기」
- 14:50~15:10 이주은(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로코코 그림 속의 키친과 다이닝룸」
- 15:10~15:30 질의응답

15:30~16:00 중간 휴식

2부 동양의 방

사회 김세호(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16:00~16:20 장남원(이화여대 미술사학과): 「도자기 화분: 자연을 방안에 들이는 법」
- 16:20~16:40 안대회(성균관대 한문학과): 「취병(翠屏), 서울 부잣집 정원의 푸른 사치품」
- 16:40~17:00 김지선(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청대 귀족의 실내풍경과 가구」
- 17:00~17:20 질의응답

